

김율성(金律聲),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양마오춘 저**

허해룡 옮김

1. 중국에서 활동한 한국인 음악가를 찾아서
2. 1930년대의 김율성
3. 1940년대의 김율성
4. 김율성을 찾아서

* 이 글은 2013년 11월,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와 한국음악학회가 공동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기억, 기록 그리고 새 시대의 음악연구”의 발표문을 번역한 것이다.

** 저자인 양 마오춘은 북경 중앙음악학원 음악학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하문대학 예술 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중국 현대 창작음악사와 음악비평이다. 저서로는 *Chinese Contemporary Music (1949-1989)* 외 5권의 저서가 있으며, 200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발표하였다.

1. 중국에서 활동한 한국인 음악가를 찾아서

한중 양국은 20세기 초부터 중반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일본 군국주의의 야만적인 침략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나라가 혼란해지고 백성들은 힘든 삶을 겪게 되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한국의 애국청년들이 잃어버린 나라를 구하고자 중국에서 항일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그 중에는 중국인민해방군 군가를 작곡하여 전 중국에 이름을 알리게 된 광주에서 태어난 한국인 정율성(鄭律成)과 같은 음악가도 있었다.

정율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던 시기, 필자는 중국에서 음악활동을 전개한 또 한명의 한국인 음악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는 바로 한유한(韓悠韓)이었다. 한유한은 중국에서 항일운동을 전개할 당시 수많은 항일가요를 창작하였으며 그가 창작한 음악들은 오늘날까지도 중국의 백성들 속에서 널리 불리고 있었다. 하지만 한유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당시만 하더라도 그에 대한 기록을 전혀 찾을 수 없었으며, 그가 어디에서 왔으며 나중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단서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필자는 1997년에 “한유한,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라는 주제로 그해 12월 중국의 음악저널 『音樂生活』에 기고하였다. 이 연구가 저널에 발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에서 번역·출판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필자는 여러 명의 한국 학자들을 알게 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한유한의 큰 아들 한종수(韓宗洙)씨를 만나게 된 것이었다. 2004년 10월 필자는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한유한의 큰 아들 한종수씨를 만났으며(당시 한유한은 부산에서 돌아가신지 8년째 되던 해였다), 그로부터 한유한에 관한 진귀한 자료와 사진들을 제공받았다. 그가 제공한 한유한에 관한 자료와 사진에 근거하여 지금까지 총 7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이로부터 그에 관한 모든 것이 자세하게 밝혀지게 되었다. 지금에 와서는 이와 관련해 한국의 부산과 중국의 북경에서 ‘한유한 작품음악회’가 열리고 있으며 특히 한국에서는 그에 관한 연구

서가 출판되고 이와 관련된 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다.

필자가 1997년 처음으로 “한유한,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라는 주제로 기고할 당시 한유한은 70세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하면 그가 살아계셨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지금 필자가 찾고자 하는 또 다른 한국인 음악가 김율성은 이미 110세 전후로 판단되므로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라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그에 관한 새로운 연구는 김율성의 지인이나 후세 및 후학들에 의해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본 연구에 언급될 김율성에 관한 내용들은 “한유한,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의 연구방법에 근거하여 진행될 예정이며 “김율성,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라는 주제로 전개될 것이다. 특히 이 글을 통하여 김율성의 가족이나 후세들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그의 업적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는 한·중 음악계뿐 아니라 하늘나라에 계신 김율성을 안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2. 1930년대의 김율성

김율성은 지휘가, 성악가, 음악교육가로서 중국의 근현대 음악사에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 필자가 밝힌 바에 의하면, 그가 최초로 음악활동을 시작한 시점은 1919년이다. 그해 6월 우멍페이(吳夢非), 류즈핀(劉質品), 핑즈카이(豐子愷) 3명은 개인자금을 마련하여 상해전과사범학교(上海專科師範學校)를 성립하였다. 당시 주요 교수진을 살펴보면, 이론 분야는 류즈핀과 푸옌장(傅彥長)이 맡았으며, 합창과 지휘 분야는 김율성, 비과는 위이중웨(衛仲樂)가 담당하였다.¹⁾

상기의 사실로부터 김율성의 출생연도는 19세기 말, 20세기 초로 추

1) 孫繼南, 『中國近現代 (1840-2000) 音樂教育史紀年』 (山東: 山東教育出版社, 2004), 56.

정할 수 있다. 즉, 1919년 음악교사로 임명될 당시 그의 나이가 20살이라 해도 정율성(1914년생)과 한유한(1910년생)보다 10살 정도는 더 많았던 것이다.

1920년대 김율성은 천진(天津)의 난카이중학교(南開中學校)에서도 음악교원으로 재직하였다. 당시 난카이중학교는 학생들의 과외음악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음악연구회’와 군악대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하모니카, 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등 악기를 교육하였는데, 김율성도 당시 음악교원 중 한명이었다. 학교의 군악대를 비롯한 여러 음악 단체들은 다양한 음악회를 조직하였는데 이러한 음악활동은 중국의 근현대 음악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중국의 문학가 단무홍량(端木蕻良)은 당시 천진의 난카이중학교 음악활동을 회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당시의 음악교원이었던 김율성이 가르친 <천파는 노래>(賣布謠), <내가 어찌 그를 생각하지 않으리>(如何教我不想他) 등은 지금까지 기억에 남으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불렀고 나중에는 합창으로도 불렀다.”²⁾

한편, 1933년 봄, 상해에서 리진후이(黎錦暉)가 운영하던 ‘명월가극사’가 점차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자 대부분 직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결국에는 바이홍(白虹), 리밍젠(黎明建) 등 5명만 남게 되자 리진후이는 “바이올린 연주가 김율성을 초청하여 함께 음악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잠시 동안이었지만 ‘중화’(中華), ‘건광’(建光) 등 민영방송국에서 상업광고 등을 제작하였다. 결과적으로 볼 때 김율성은 이 시기를 통해 자신의 재능을 살리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된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두게 되었다.”³⁾ 리진후이가 김율성을 바이올린 연주가로 초청하여 자신이 창작한 유행가요의 반주를 맡겼다는 사실로부터, 그가 실력있는 연주가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2) 端木蕻良, “我的中學生活,” 『閱讀与作文』 第11期 (2011), 15.

3) 黎錦暉, 자필원고 『我和明月社』.

1930년대에 들어서자 김율성은 상해미술전문학교(上海美術專科學校) 소속의 음악부에서도 교원으로 활동하였다. 이 학교는 사립학교로, 저명한 화가인 류하이리(劉海栗)가 1912년에 만들었으며 1925년에 음악부가 설립되었다. 김율성은 1935년 2월부터 1936년 7월까지 이 학교 음악부의 주임을 맡았으며 합창과 합주 과목을 책임졌다. 재직 당시 그는 관현악대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다음의 사진은 『上海美術專科學校同學錄民國二十三年第二學期』(1935년 2월)에 실린 김율성의 모습이다.⁴⁾



[사진1] 김율성, 1935년

1936년, ‘남경정부중앙선전위원회’(南京政府中央宣傳委員會) 소속의 중앙영화촬영기지에 ‘음향조’가 설립되었다. 이 시기 김율성은 이미 상해미술전문대학 음악부를 떠나 남경중앙영화촬영기지(南京中央電影攝影場)에 설립된 음향조 조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당시 음향조 단원으로 활동하였던 조풍(趙汎)은 김율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억하고 있었다. “김율성은 노래를 잘 불렀으며, 나팔을 불기도 하고 지휘도 할 줄 알았다. 그 당시 그는 꽤 유명한 음악인이었다. 나는 그에게서 성악을 배웠

4) 陳潔, 『上海美專音樂史』(南京：南京大學出版社, 2012), 42.

으며 <공공>(孔空)과 같은 연습곡과 슈베르트와 차이코프스키의 가곡 몇 곡을 익힐 수 있었다.” 훗날 조풍은 부조장(副組長)으로 임명되었으며 김울성으로부터 성악과 플루트를 배우기 시작하였다.⁵⁾ 조풍은 김울성과 약 1년 동안 음악을 공부하였기에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익숙히 알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김울성의 가정사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고 있었다. 조풍에 의하면 김울성은 일본에서 음악공부를 하였다고 한다. 당시를 떠올리며 조풍은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어느 날 김울성 선생의 부인이 2층에서 연습하는 저의 플루트 소리를 듣고 올라오시더니 음색이 아주 아름답다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는 저와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사범대학교 문학과 출신인 그는 세계명작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톨스토이, 솔로호프, 발자크 등에 관한 광범위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서로 허물없는 사이가 되었지요. 당시 김울성 선생의 부인은 직업이 없었기에 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성격이 아니었고 조용한 편이었는데, 저하고 많은 부분들을 공감할 수 있게 되자 매우 기뻐했습니다.

조풍은 김울성의 부인 이름이 루시(露西)라고 했다. 1937년 김울성 부부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모든 이들이 이 아이를 작은 태양(小太陽)이라고 불렀다고 했다. 조풍에 의하면 당시 김울성의 중국어 실력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다.

이 시기 김울성은 남경국민정부관현악대(南京國民政府管弦樂隊)를 지휘하여 한차례 음악회를 조직하였는데, 악대단원들 대부분이 중앙구락부 소속이었다. 이 음악회에서 조풍은 애국가요 <진진>(前進)을 불렀다.

일본군이 처음으로 남경에 대한 무차별 폭격을 감행하자 영화공작소는 부득이 중경으로 옮기게 되었다. 그리하여 1937년 김울성 가족 모두

5) 趙世民, “爲革命和音樂奔波一生-音樂教育家趙汎,” 『中國近代音樂家傳』第2期(1994), 694.

중경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곳에서 보다 좋은 직장을 얻게 되자 영화공작소를 떠나게 된다.

3. 1940년대의 김율성

1939년 김율성은 중경의 방송국 소속의 관현악대에서 대장과 지휘를 담당하였다. 당시 악대 단원으로는 리귀첸(黎國荃), 캉어우(康謳), 황원평(黃源禮) 등이 있었는데, 1940년에 들어서자 이 악대는 교육부 소속으로 이전되었으며, ‘국립음악원실험관현악단’(國立音樂院實驗管弦樂團)로 이름이 바뀌었다. 당시 이 관현악단은 김율성이 지휘를 맡았고 바이올리니스트인 장홍도(張洪島)가 부단장직을 역임하였다. 국립음악원 원장이었던 우버초우(吳伯超) 역시 이 악단의 지휘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김율성은 국립음악원 교수를 역임하였다. 당시 국립음악원실험관현악단의 연주단원은 40-50여명이었는데 이들은 음악원의 공연 대부분을 담당하였으며 독주와 반주 및 초연작품의 연주도 담당하였다.⁶⁾

1940년대 김율성은 중경에서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데 특히 관현악 지휘와 합창 지휘 방면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1940년 초, 중경은 전시 수도였으며 문예계의 수많은 인사들이 중경에 모여들었다. 하지만 당시 물가가 치솟고 상황이 열악하였기에 문예계 인사들은 심한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고자 장개석 위원장은 정부차원에서 제1차 지원기금으로 1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많은 문예계 인사가 이 혜택을 받게 되었다.

1940년 5월 6일, 교육부 공무원인 장도우판(張道藩)은 ‘문예장조금관리위원회’(文藝獎助金管理委員會)를 개최하여 당시의 문예계 인사들의

6) 黃遠淪, 『黃源禮與音樂家搖籃』(北京: 中央音樂學院出版社, 2008), 31.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로서(老舍)가 문예조 조장, 이보천(李抱忱)이 음악조 조장, 림풍민(林風眠)이 미술조 조장으로 임명되었으며, 각 조장은 조직위원을 추천하였다. 이보천의 추천으로 김율성(金律聲), 우버초우(吳伯超), 마스충(馬思聰), 허루딩(賀綠汀), 장홍도우(張洪島), 천전평(陳振鋒), 왕중위(王宗虞), 량자이핑(梁在平) 등이 음악조 위원으로 당선되었다.⁷⁾ 음악조 소속의 성원들은 당시 중경뿐만 아니라 전국 음악계의 중요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당시 김율성이 중국음악계에서 차지한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1940년대 초 중경에는 모두 3개의 관현악대가 있었는데, 이들은 각각 중화교향악단(中華交響樂團), 실험연극원교향악단(實驗劇院交響樂團)과 국립음악원실험교향악단(國立音樂院實驗管弦樂團)이었다. 1941년 3월 5, 6일에 국민정부 소속의 교육부는 중경의 귀타이대극장(國泰大戲院)에서 3대 관현악대의 연합공연을 주최하였는데, 이 공연은 항일전쟁 시기 가장 성대하고 규모가 큰 교향악 공연이었다. 이 공연은 교육부 소속의 음악교육 위원이었던 김율성을 비롯한 준비위원회 위원들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천리장(陳禮江)이 주임위원을 그리고 김율성이 부총간사를 맡았다. 당시 3대 관현악대의 연합공연은 60여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모두 중국인으로 구성된 악대였다. 지휘는 마스충(馬思聰), 정즈성(鄭志聲), 우버우초(吳伯超)가 담당했는데 베토벤, 모차르트, 무소르르스키, 멘델스존의 작품뿐 아니라 마스충의 <사향가>(思鄉曲)와 <황야무곡>(塞外舞曲)과 같은 중국작품도 포함되었다. 당시 중경에서 열린 이 공연은 중국교향음악사에서 매우 중요한 공연이라고 할 수 있다.

김율성은 당시 준비위원회의 총간사 직책을 담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립음악원 실험관현악대 단장 겸 지휘를 역임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공연에서 그는 마스충, 우버우초 등 음악가들이 무대에서 지휘를 담당

7) 王由青, 『張道藩的文宦生涯』(北京: 團結出版社, 2008), 35.

하도록 조직하였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그의 인간적 매력을 느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인격을 지닌 음악가였음을 알 수 있다.

항일전쟁 시기 음악활동은 모두 애국주의 정신을 표현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였다. 당시 중경에서 진행된 3대 악단의 연합공연이 진행되기 전후, 민중들의 애국정신을 고무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천인합창음악대회’(千人合唱音樂大會)를 개최하였으며, 개최 장소는 일본군의 폭격으로 인해 폐허가 된 부즈츨(夫子池)였다. 이 공연은 음악가 이보천(李抱忱)이 총감독을 맡았으며, 총 30여개의 합창단체가 참여하고 중경시 8개 군악대의 108명 연합악대가 반주를 담당하였다. 지휘는 우버우초, 정즈성, 김율성, 이보천 등이 담당하였으며 프로그램으로는 <총리 기념가>(總理紀念歌), <청천백일만지홍>(靑天白日滿地紅), <호미가>(鋤頭歌), <우리는 민족의 가수>(我們是民族的歌手)등 성악작품이 연주되었다. 이외에도 연합군악대의 연주로 기악작품 <백일과 청천>(白日與靑天)과 <건국행진곡>(建國進行曲)이 연주되었다.⁸⁾ 다음의 사진은 김율성이 천인합창단을 지휘하여 항일가요와 애국가요를 연주하는 모습이다. 사진 속의 김율성은 혼신의 힘을 다해 합창대를 지휘하고 있다. 그의 앞에는 수백 명의 연합군악대가 있었으며 악대 뒤편에는 천명에 이르는 합창대가 자리하고 있었다. 합창대 뒤는 바로 일본군의 비행기 폭격으로 인해 폐허가 된 도시였다.

8) 陳洁, 『民國音樂史年譜』(上海:上海音樂出版社, 2005), 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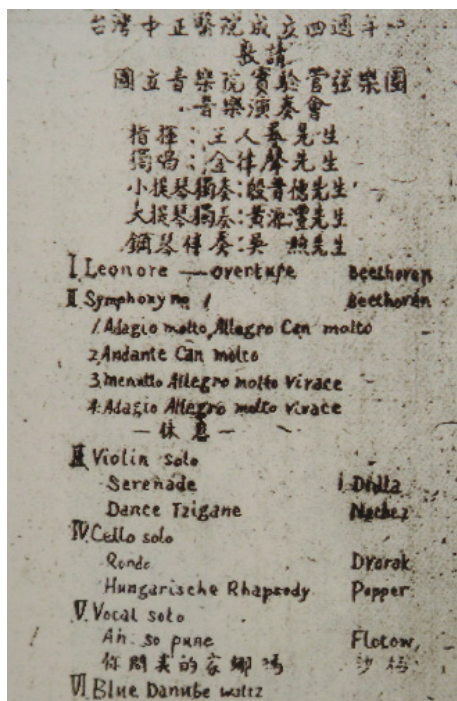


[사진2] 천인합창단을 지휘하는 김율성

그 후로 몇 년간 김율성은 중경에서 대중적 성격의 애국가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1942년 3월부터 4월까지 그는 ‘중화전국음악계협회’(中華全國音樂界協會)가 주최한 ‘음악월’(音樂月)과 중경희극《무계연출》(霧季演出)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로 인해 전시 중경의 음악선전활동은 고조에 이르게 되었다. 1942년에 열린 ‘음악월’ 공연은 국립음악원(國立音樂院), 중앙대학교(中央大學), 중앙정치학교(中央政校), 중경대학교(重慶大學), 국립예술전문학교(國立藝術專科學校) 등 5개 고등학교가 연합하여 진행되었다. 당시 이 공연은 이보천(李抱忱)이 총단장과 지휘를 맡았으며 김율성이 총감독 직책을 수행하였고 중경대학에서 대형음악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이들은 성도(成都)에서 공연하였으며 그 외에도 귀타이대극장, 신운대예배당(新運大禮堂) 등지에서 다양한 대형 합창과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다음의 사진은 당시 국립음악원실험관현악단의 연주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김율성은 독창자로 플로코우(Flocow)의 성악작품 <아! 얼마나 순결한가>(Ah, so pune)와 중국인 작곡가 사

메이(沙梅)가 작곡한 <나의 고향이 어딘가를 물으셨나요?>(你問我們的家鄉嗎?)를 불렀다. 이는 김율성이 지닌 성악가로서의 자질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이다.



(사진3) 국립음악원실험관현악단의 연주 프로그램

1942년 봄, 중경의 희극계는 귀머뤄(郭沫若)의 50주년 탄생을 기념하여 그가 창작한 화극 《굴원》(屈原)을 중화극예사(中華劇藝社)의 공연으로 귀타이극장에서 초연하였다. 이 화극은 항일시기 전쟁의 후방에서 진행된 무대예술의 최고봉을 이루었으며 당시 김산(金山), 백양(白楊), 구얼이(顧而已), 장루이방(張瑞芳)을 비롯한 유명한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당시 감독을 맡았던 천리팅(陳鯉庭)은 이 화극의 핵심부분이라

고 할 수 있는 굴원의 독백 부분인<뇌전송>(雷電頌)의 극적인 효과를 위하여 작곡가 류쉐안(劉雪庵)을 초청하여 음악을 위촉하였다.⁹⁾ 이 작품의 공연에서는 관중석의 앞줄에 오케스트라를 배치하였으며 김울성이 지휘를 담당하였다. 이러한 오케스트라의 배치는 굴원의 독백부분인 “바람이여, 포효하라! 포효하라! 마음껏 포효하라! 모든 것이 잠들어 있는 이 암울한 시기에, 지금 모든 것들이 꿈속에 있는 마냥, 죽은 듯이 있을 때, 지금이야말로 네가 포효할 시기이다! 마음껏 포효하라!”와 극적인 조화를 이루었다.

1943년, 중경국립음악원의 학생들은 지극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국립음악원실험관현악단과 함께 《베토벤 9번 교향곡》 중 <환희의 송가>를 연주하였으며 김울성이 지휘를 담당하였다. 가사는 전 국립음악원 원장이었던 구위슈(顧毓琇)가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는 중국음악사에서 처음으로 중국인들이 연주하고 부른 《베토벤 9번 교향곡》이었으며 이는 중국 근현대 음악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¹⁰⁾

1944년 2월 19일, 김울성은 국립음악원실험관현악단과 함께 곤명에서 연주하였으며, 그곳의 방송국에서 다양한 작품을 연주하기도 하였다.

1944년 10월 15일-11월5일까지, 황웬뤄(黃源洛)가 작곡한 오페라 《추자》(秋子)가 성도국민대극장에서 3번 공연되었으며 김울성이 지휘를 담당하였다.¹¹⁾ 이 오페라는 성도에서 모두 20번 공연되었으며, 후에는

9) 李泥, 『劉雪庵』(香港: 香港明境出版社, 2008), 80.

10) 1936년 9월14일과 1941년 4월 13일, 27일에 상해공보국교향악단(上海工部局交響樂團)과 상해가악사(上海歌樂社)가 연합하여 연주한 《베토벤 9번 교향곡》은 단원 대부분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1) 오페라 《추자》는 1942년 중경에서 초연되었으며, 같은 해 1월 2번째로 공연되었다. 이 두 번의 공연은 황페이룬(王沛綸)이 지휘하였다. 반면 1944년 3번째 공연에서는 김울성이 지휘를 담당하였다. 滿新穎, 『中國近現代歌劇史』(北京: 文聯出版社, 2012), 384.

곤명(昆明), 준의(遵義), 남윤(南充) 등지에서 공연되었다. 이는 중국의 오페라 발전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4. 김율성을 찾아서

1940년대 전반기는 김율성의 음악 생애에 있어 절정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 후로부터는 김율성에 관한 어떠한 실마리도 찾을 수 없었다. 1944년 11월 오페라 《추자》를 재공연한 이후 김율성은 마치 실종되듯이, 필자의 연구 범위에서 사라졌으며 그 후로 지금까지 어떠한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

김율성이 생전에 창작한 작품은 매우 적었다. 다음의 악보는 필자가 소장하고 있는 1941년 신1권(新1卷)의 8월 7, 8기를 종합해서 발간된 음악잡지 『악풍』(樂風)에 실린 <영수님을 노래하자>(擁護領袖歌)이다. 이 곡은 왕핑링(王平陵)이 작사하였다. 이외에도 그는 1941년 2월과 3월, 신1권의 2, 3기에 『어린이 나팔연습곡-상』(童子軍號練習曲-上)을 발간하였으며, 1941년 2월, 신1권 2기에는 『어린이 나팔연주곡』(童子軍號吹奏法)을 발간하였다. 김율성이 작곡한 <영수님을 노래하자>는 장개석을 칭송한 노래였고 가사는 다음과 같다. “사위팔덕(四維八德), 입국전형(立國典型), 유아영수(唯我領袖), 신체역행(身體力行). 위대한 영수여(偉大的領袖), 중화민족의 구세주여!(中華民族的救星!)”

擁護領袖

小平後作詞 莊嚴·雄壯 金律声作曲

身體力行, 唯我領袖, 發揚開明,

[사진4] 김율성의 <영수님을 노래하자>, 첫 페이지

김율성의 <영수님을 노래하자>는 음악이 단순하며 독창적인 예술성이 부족하였기에 후세까지 전해지지 못했다. 그러나 가사에 사용된 영수(장개석)를 구세주에 비유한 부분은 섬북의 공산당 진영의 <동방홍>(東方紅) 작품에서 모택동 주석을 구세주에 비유한 것보다 3, 4년 정도 앞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김율성이 해방 후에까지 중국에서 살았다면 장개석을 옹호했다는 죄증만으로도 반혁명죄로 몰릴 수 있었으며 이로부터 결코 무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점에서 볼 때 그가 1944년 이전에 사라진 점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은 필자가 연구한 김율성에 관한 주요 내용들이다. 이것은 1919년 6월(중국의 5·4운동)을 기점으로 항일전쟁 승리 이전인 1944년 11월까지 전후 25년이라는 기간에 한정되었다. 하지만 이 25년간 김율성이 중국음악계에 미친 영향과 성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그는 당시 중국에서 활동하였던 한국인 음악가들 중에서 최고의 명성을 지

냈으며,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첫 번째로 중국의 초기 군악대의 발전을 이끌었으며, 두 번째로 항일 전쟁 시기 중국내 전쟁 후방의 관현악대의 건설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세 번째로 중경 지역 군중들의 항일가요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갔으며, 네 번째로 음악교육가로서 많은 음악가들을 배출하였다.

1940년대 중경에서의 음악활동은 김율성의 음악 생애에 있어 전성기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당시 모든 대형공연에 참여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중경의 ‘친인대합창 3대연합관현악단’ 공연, 화극 《굴원》의 초연, 《베토벤 9번 교향곡》의 연주, 오페라 《추자》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볼 때, 중국음악사 특히 항일시기 음악사에서 김율성이 차지하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김율성의 이름은 중국의 전통문화적 특징과 음악적 특징이 두드러지게 표현된 이름이다. 이는 사자성어 ‘금성옥율’(金聲玉律)에서 따온 것으로 금속의 부딪침과 같은 소리, 옥석과 같은 음률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이름을 짓게 된 이면에는 음악 방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나타내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기존의 정율성, 한유한 등을 비롯한 많은 한국인들의 이름에도 역시 중국문화와 밀접히 연관된 특징들이 내포되어 있었다.

김율성은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사라졌다. 우리는 그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 심지어 그의 생년월일과 세상을 떠난 날짜조차 모르고 있다. 당시 중국의 음악무대를 주름잡던 음악가이자 지휘자였던 그는 갑자기 역사의 무대로부터 사라졌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김율성이 중경에서 참여했던 대부분의 음악활동은 모두 국민당이 이끄는 국민정부와 연관이 있었다는 점이다. 국민정부 소속의 교육부, 혹은 ‘음악교육위원회’ 등 모두가 국민당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 비록 그가 공산당 진영의 진보인사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해도, 당정노선의 선택에 있어서는 국민당과 장

개석 노선에 속해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1949년 이후 그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과거의 ‘이당화선’(以黨劃線)의 낡은 사고로부터 해방된 현재 시점에서 김율성의 역사적 공적은 재조명되어야 하며 새로운 평가를 받아야 한다. 조풍(趙泐)의 기록으로부터 필자는 김율성의 자녀가 생존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으며 그에 관한 많은 자료들이 남겨져 있을 수 있다고 추측한다. 필자는 기존에 부딪쳤던 ‘한유한의 비밀’과 마찬가지로, 중국음악사의 ‘김율성의 비밀’ 역시 풀려지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陳潔. 『上海美專音樂史』. 南京: 南京大學出版社, 2012.
- 李泥. 『劉雪庵』. 香港: 香港明境出版社, 2008.
- 滿新穎. 『中國近現代歌劇史』. 北京: 文聯出版社, 2012.
- 孫繼南. 『中國近現代 (1840-2000) 音樂教育史紀年』. 山東: 山東教育出版社, 2004.
- 端木蕻良.“我的中學生活.” 『閱讀与作文』 第11期 (2011), 13-16.
- 趙世民. “爲革命和音樂奔波一生-音樂教育家趙沅.” 『中國近代音樂家傳』 第2期 (1994), 690-702.